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883억 달러 2016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 기록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883억 달러에 달하면서 2016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은 수출 호조세와 운송수지 개선에 따른 결과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1년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60억6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폭은 전년도보다 60억 달러 줄었으나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20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2021년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83억 달러다. 2020년과 비교해 124억 달러(16.3%) 늘었다. 지난해 12월 상품수지는 44억8000만 달러 흑자다.

흑자 폭은 1년 전(106억 달러)보다 61억2000만 달러 축소됐다.

상품수지는 12월 수입 증가 폭이 수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흑자 규모가 줄었다.

이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7개월 연속 상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수출은 624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8.8%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석유제품, 반도체,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8.2%, 철강제품은 34.6%, 반도체 34.1%, 화공품 25.4%, 정보

통신기기는 16.5% 증가했다.

수입은 57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8.2% 늘었다.

유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원자재 수입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수입은 12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원자재 수입이 63.8% 늘었다.

원자재 중에서도 석유제품 수입이 168.6%, 가스 120%, 원유가 8.2% 급등했다.

지난달 서비스수지는 2억4000만 달러 적자다. 운송수지가 개선되면서 적자 폭은 전년 동월 대비 2억 달러 줄었다.

운송수지는 16억1000만 달러 흑자로 2020년 7월 이후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류난으로 해



상·항공화물 운임이 치솟으면서 운송 수입(45억2000만 달러)이 급증했다.

임금·배당·이자 흐름을 반영한 본원소득수

지는 24억7000달러,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은 72억3000만 달러 늘었다.

/이재철 기자 kienews@naver.com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3월 개교 차질 없다

신입생 모집 수시 24.1대 1·정시 전국 최고 수준 95.3대 1 경쟁률 기록

전라남도에는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의 올해 3월 개교를 위한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켄텍의 캠퍼스 시설이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건립할 예정인 가운데 대학원생이 사용할 임대교사 에너지신기술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준공을 끝냈다.

5천㎡ 규모의 개교 핵심시설은 현재 95%의 공정률을 넘어섰으며, 2월 중 임시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캠퍼스 건축과 함께 학생 모집, 교수 채용 등의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첫 신입생 모집에선 수시 24.1대 1, 정시에선 전국 최고 수준인 95.3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입시 돌풍을 일으켰다.

에너지 인공지능(AI), 에너지 신소재 등 에너지 5대 중점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49명의 교수진 임용도 마쳤다.

올해까지 60명, 2025년 편제 완성 시까지 총 100명을 채용해 에너지 선도 대학으로서 임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켄텍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4만㎡)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글로벌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함께 모여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미국의 '실리콘



나주시 빛가람동 켄텍 조감도.

밸리', 중국 최고의 IC 심장부 '중관촌', 프랑스의 기술허브 '소피아아폴리리스' 처럼 에너지밸리를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다.

레이저 관련 국책 연구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과 협업해 타당성 용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장기적으로 레이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에너지공대 레이저 학부 신설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안조영 기자 kienews@naver.com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 지역 특화산업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실증 장비 확대

광주광역시가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지역 특화산업의 인공지능(AI) 실증 장비 구축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자동차 11종, 에너지 1종, 헬스케어 2종 실증 장비를 도입해 지난해 구축한 63종에 더해 모두 77종의 실증 장비를 갖추게 된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인공지능 특화산업 실증센터는 데이터 수집·분석·제품 개발에 필요한 실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빛고를 노안건강타운에는 헬스케어 실증센터

가 들어서 신체검사, 제품 테스트 등에 활용되고 있다.

올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형 자율주행 대형 드라이브 시뮬레이터를 구축해 자율주행차량 성능, 안전성 평가 기준 확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인공지능 공공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개인 의료정보 실시간 제공, 진단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안조영 기자 kienews@naver.com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신라 천년의 미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에 **안심**을 더합니다

